

세계적 푸르른 양진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이현곤 만루포... "대전 찍고 수원 가자"

KIA, 한화에 6대1 승 1승1패...내일 막판승부



준플레이오프 2차전

광주구장 관중석을 가득 메운 KIA 팬들이 '이종범'을 연호했다.

KIA의 상징인 노란 막대풍선 이 파도를 칠 때마다 이종범은 치고 달리기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바람의 아들'이라는 명성을 확인시켰다. '만항' 이종범의 몸을 아끼지 않은 허슬 플레이에 후배들도 힘을 냈고, KIA는 이현곤의 만루포로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다.

KIA는 9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2006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선발투수 그레이싱어의 호투와 이종범의 노장 투혼에 이은 이현곤의 만루홈런을 쫓아 6-1로 대승했다.

KIA는 이날 승리로 지긋지긋한 포스트시즌 8연패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경기초반 '괴물신인' 류현진의 호투에 밀리던 KIA는 만항 이종범의 활약으로 꼬인 승부의 실타대를 풀었다.

이종범은 0-0으로 맞선 4회 선두타자로 나서 좌전 안타 후 계속된 1사 1루서 이재주 타석때 2루를 홈쳐더니 이어진 조경환 타석때 류현진의 허를 찌른 3루 도루를 성공시켰다.

사기가 오른 KIA는 다음타자 조경환이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이종범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6회에 두번째 투수 한기주가 1점을 내주자, 이종범이 또 다시 파이팅을 보였다.

이종범은 1-1로 맞선 6회 말 1사 이후 1루타성 우전안타 후 상대 중견수 데이비스가 주춤한 사이 2루로 질주, 2루타를 만들어냈다. 한화 신인 류현진은 내야를 종횡무진 누비는 이종범의 빠른 발에 흔들렸고, 덕아웃을 지키던 KIA 후배들은 선배 이종범의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에 사기가 올랐다. 홍세완, 김원섭이 불넷으로 걸어나가 2사 만루를 만들었고, 다음타자 이현곤이 볼카운트 1-2에서 류현진의 142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좌중간을 가르는 만루홈런으로 선배의 투혼에 화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9일 오후 광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와 한화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 6회말 2사 만루에서 KIA 이현곤이 만루홈런을 터뜨린 뒤 3루를 돌아 호랑이 마스코트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베어백호, 내일 시리아와 아시안컵 축구 예선전

"해외파 대거 투입 본선행 굳히겠다"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

8일 열린 가나와 평가전에서 1-3 패배를 당한 '3기 베어백호'가 11일(오후 8시·서울 월드컵경기장) 예정된 시리아와 2007 아시안컵 축구 예선 5차전을 앞두고 총력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2007 아시안컵 예선 B조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3승1무·승점 10)은 시리아(1승1무 2패·승점 4)전에서 승점 1만 올려도 최소 조 2위를 확보하게 돼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이미 김 베어백 감독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시리아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만약 이번 시리아전에서 패하더라도 한다면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월15일 이란 원정에서 본선진출권의 확보를 다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더구나 일찌감치 아시안컵 본선진출을 확정된 뒤 아시안게임 체제로 팀을 바꾸겠다는 게 베어백 감독의 생각인 만큼 시리아전에는 승리를 향한 비장한 각오로 나서겠다는 태세다.

이 때문에 베어백 감독은 일부 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전에 맞춰 해외파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여 승리에 만전을 기했다.

베어백 감독 역시 지난 8일 가나전이 끝난 뒤 "시리아전은 결과가 중요하다. 경합이 풍부한 선수들이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반

드시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는 비장한 출사표를 내었다.

베어백 감독은 지난 2월22일 시리아 원정에서 '4-3-3 전술'을 사용했던 만큼 이번 홈경기에서도 같은 전술을 사용할 공산이 크다.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가나전에서 드러난 수비라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합이 많고 노련한 이영표(보통햄)와 송종국(수원)을 좌우 윙백으로 활용하는 안정된 포백(4-back)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베어백호 출발 이후 치러진 4경기 중 2경기에 김동진(제니트)-김상식(성남) 콤비가 중앙 수비수로 나선 것만 보더라도 이영표-김동진-김상식-송종국으로 이어지는 포백이 시리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중앙 미드필더는 김두현(성남), 백지훈(서울), 김남일(수원), 이호(제니트)가 번갈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김남일 또는 이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리고 백지훈을 김두현과 함께 전방에 배치하는 역삼각형 형태의 중원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전방 스트리머 라인에는 조재진(시미즈)과 정조국(서울)이 원톱을 다투는 가운데 좌우 측면은 설기현(레딩)과 최성국(울산)이 맡아 골 사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그레이 '부상 투혼'

"그레이는 진정한 프로입니다" 서정환 KIA 감독은 9일 한화와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그레이싱어의 어깨 부상에 얽힌 에피소드를 꺼내었다.

서 감독은 "지난달 22일 두산전 이후 그레이의 오른쪽 팔꿈치 쪽에 염증이 생겨 소염주사를 맞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라"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레이가 소염제 성분을 진통주사로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서 감독은 "그레이가 처방전을 인터넷으로 확인한 뒤 소염주사라는 사실을 알고 다음날부터 주사를 맞기 시작해 중요한 시점에 완치가 됐다"면서 "몸 관리를 철저히 하는 모습에 깊은 신뢰감이 있었고, 자신의 희망에 따라 2차전에 선발투수로 올랐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레이는 이날 서 감독의 신뢰에 보답하듯 5.1이닝 3안타 1자책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강술래' 헤딩 연습 9일 파주 NFC에서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훈련에서 선수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헤딩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등경기장 야구장 천연잔디로 교체"

하일성 KBO사무총장 "박 시장-신 총재 약속"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구장 내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하일성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KBO)은 9일 KIA-한화와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 앞서 "박광태 광주시장이 이날 오후 한국야구위원회 신상우 총재와 만나, 광주구장 천연잔디 교체를 약속했다"

고 밝혔다. 하 사무총장은 "12억~15억원이 소요되는 데 이 비용은 전액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올 시즌이 끝나는데 무등경기장 내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고, 이후 야구장 신축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 사무총장은 이어 "박광태 시장이 야구에 상당

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장 야구장을 신축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구장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고,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연말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새 구장 건립에는 부지 비용을 제외하고 650억~700여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IA는 지난 2004년 21년 이상 노후된 천연잔디(83년 식재)로 인해 약간의 비에도 경기가 취소되는 문제 때문에 16억여원을 들여 인조잔디로 교체했으나, 선수들이 부상 위험 등으로 활기 넘치는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종범·박찬호·이승엽 'All World Team' 영예 WBC조직위 선정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9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 KIA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 앞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All World Team' 외야수 부문에 뽑힌 이종범(36·KIA)에게 수상 트로피를 전달했다.

이종범은 지난 3월 열린 WBC에서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7경기에 출장해 타율 0.400의 맹타를 휘둘러 한국의 4강행을 이끌었다. 한편 이종범은 WBC대회가 끝난 직후 외야수 부문에 선정됐으나 KBO에 수상 트로피가 뒤늦게 도착, 7개월여만에 트로피 전달식이 열리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SK, 김성근감독 선임 이만수씨 수석코치로

김성근(64·왼쪽) 전 LG 감독이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3대 사령탑으로 확정됐다. 또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불펜 코치로 활동중인 이만수(48·오른쪽)씨는 SK의 수석코치로 내정돼 8년 만에 국내 프로야구에 컴백할 전망이다.

SK 구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근 감독과 계약기간 2년에 계약금 3억원, 연봉 2억5천만원 등 총 8억원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챔피언십 시리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박찬호(33)의 소속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누르고 3년 연속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에 진출했다.

세인트루이스는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뉴 부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샌디에이고와 디비전시리즈 4차전에서 선발 투수 크리스 카펜터의 역투와 타선의 집중력

NL- 세인트루이스 vs 뉴욕M

AL- 디트로이트 vs 오클랜드

을 앞세워 6-2로 승리,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리그 챔피언십에 올랐다. 세인트루이스는 11일부터 뉴욕 메츠와 7전 4선승제의 리그 챔피언십을 치러 월드시

리즈 진출을 거린다. 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ALCS)에서는 뉴욕 양키스를 물리친 디트로이트가 오클랜드와 맞붙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